

돌배나무를 가해하는 韓國産 십이점박이잎벌레 (딱정벌레目: 잎벌레科: 잎벌레亞科) 未成熟 段階 및 生態學的 研究

박진영, 심재현¹, 이종은

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, ¹경북자연학습원 교수과

점박이잎벌레屬(*Paropsides*)은 세계적으로 14종이 알려져 있으나, 주로 동양구에 분포하며, 우리나라에는 *Paropsides duodecimpustulata*(십이점박이잎벌레), *Paropsides nigrofasciata*(검정줄잎벌레)의 2종이 서식하고 있다.

십이점박이잎벌레의 卵은 타원형(L: 2.0~2.1mm, W: 0.8~1.0mm)이며, 오렌지색을 띤다. 부화한 幼蟲은 잎 표면이나 이면에서 잎을 가해한다. 종령(L: 12.0~15.0mm, W: 5.5~6.0mm)은 원통형이고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며, 전흉의 가장자리는 오렌지색을 띤다. 등에 경화된 검은색의 반점들에 강모가 산재되어 있으며, 복부(腹部) 7~8마디 배면(背面)에는 방어선이 있어, 이 방어선이 배면(背面)으로 돌출 되었을 경우에 냄새가 나는데 이는 기피제 역할을 하는 휘발성 물질임이 밝혀졌다 (Kimoto & Takizawa, 1994). 발육기간은 평균 46일이며, 3회의 탈피를 거쳐 終齡이 된 후 땅속에서 흙으로 case를 짓고 그 안에서 용화된다.

蛹(L: 9.5~10.5mm, W: 5.5~6.1mm)은 오렌지색을 띠며, 평균 9일 후 우화한다. 연 1회 발생하며, 成蟲은 4월 하순부터 관찰 할 수 있고, 5월 중순부터 산란한다. 卵은 기주식물 잎의 표면이나 이면에 평균 23개의 卵塊를 만든 후, 자신의 적갈색 점착성 분비물로 덮는다. 成蟲으로 월동한다. 幼蟲의 시기에는 군집생활을 하며, 우화 후 성충시기에는 일시적 군집생활 후 독립적으로 흩어져 생활한다. 成蟲은 개체변이가 심하며, 움직임이 미약하여, 기주식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, 천적이 접근하면, 땅으로 떨어져 죽은 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, 10월 하순부터 돌배나무 밀동, 땅속, 근처 바위 틈 등의 월동장소에서 성충으로 월동한다. 십이점박이잎벌레의 포식성 천적으로 남생이무당벌레 (*Aiolocaria hexaspilota*) 유충이 조사되었으며, 야외관찰시 蛹의 단계에서 기생파리류(Tachinidae sp.)에 의해 기생 당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.